

한·미 FTA 등 농업협상 동향

Free Trade Agreement



01 한미 FTA 제8차 협상 대응방향

1. 제 8차 협상 개요

- 제8차 협상은 3월 8일(목)~12일(월), 서울에서 개최
 - 농업 분과는 3월 10일(토) ~ 12일(월) 개최 예정이며, 위생 및 검역(SPS) 3월 10일(토) 개최 예정
- 농업 분과는 현재 워싱턴 DC에서 진행 중인 양국 농업협상 고위급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양허안을 적극 조정할 예정
 - 제7차 협상에서는 민감성이 낮은 일부 품목 외에는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음.
 - 향후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낙농품, 오렌지, 사과, 포도 등 약 300여개 품목에 대해 상호 의견 접근이 필요
 - 농산물 세이프가드, 수입쿼타(TRQ), 계절관세 등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한 수단을 집중 논의

예정

- 농업 분과는 핵심 품목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8차 협상 이후에도 협상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적 협상이 진행될 전망
- 위생 및 검역(SPS) 분과는 양국간 FTA 체결 이후 위생·검역 현안을 논의할 협의체널과 관련한 협의 추진 예정
 - 협의체널의 형식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우리 측이 제7차 협상에서 제시한 절충안을 중심으로 합의를 유도
 - 미측의 우리 위생·검역 규정의 투명성과 관련한 불만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도록 신뢰 증진 방안 강구

2. 농업 분과 협상 대응방향

- 3월말 협상 타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

표로 핵심 품목의 양허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

- 양허수준, 농산물 세이프가드, 수입쿼타(TRQ) 등에 대한 구체적 입장 교환을 통해 상호 합의 가능한 대안 모색

■ 미측은 “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”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 예상

- 미측은 수입쿼타, 계절관세 품목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, 민감품목에 예외적 조치를 주장해 온 우리와 입장차이가 큰 상황임
 - 기존 FTA의 경우 수입쿼타 품목은 현행관세 유지, 계절관세 품목은 비수확기에만 관세 철폐
- 미측은 관심품목, 고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량 쿼타를 요구
 - 해당 품목의 특성과 국내수급을 감안하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응.

■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기준 물량, 수입쿼타 수준 및 관리방식 등 쟁점에 대해 우리측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상

-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은 과거 수입실적 등을 기초로 적정한 수준이 설정되도록 협상
 - 초과세율은 여타 WTO 회원국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(MFN 실행세율)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
- 민감한 수입쿼타 품목(주로 낙농품)의 관세는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하고 쿼타물량 최소화
 - 미측이 주장하는 쿼타물량의 선착순 배정은 수용 불가

3. 농업 이외의 분과 협상 대응방향

■ 위생 및 검역(SPS) 협의채널은 일정 기간 접촉창구를 운영한 후 위원회로 전환하는 절충안을 중심으로 합의 추진

- 양국간 검역체계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검역기관간 협력 등 분쟁소지를 사전 예방하도록 주력

■ 품목별 원산지기준(PSR) 협상은 육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우선하면서, 미측 관심사항인 설탕, 담배 등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

- 미측은 설탕, 담배 등 자국의 민감품목에 대해 제3국에서 수입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
- 우리측도 제3국산 육류의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도축만 하는 경우 미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계속 주장

02 제8차 한미 FTA 위생·검역협상 방향

1. 쟁점 및 평가

■ 협정문안 협상에서는 FTA 발효 후의 양국간 SPS 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채널의 구성 및 운영내용이 핵심 쟁점

- 검역기관 간 의견교환을 보다 활성화 할 필요성은 양측이 공감하고 있으나, 협의채널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
 - 우리측은 위원회도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다면 검역 역량 확충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
 - ※ 우리나라도 한·칠레 및 한·아세안 FTA에서는 위원회(소위원회)를 수용한 바 있으며, 칠레와는 금년 1월 말 2차 SPS 위원회 개최

- 우리 위생·검역 규정의 투명성에 대한 미측 불만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도록 신뢰 증진 방안이 모색될 필요
- 미측은 협상 마지막으로 갈수록 SPS 현안에 대한 가시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기를 바라면서 FTA 협상과 연계를 추구
 - ※ SPS 현안의 진전 없이는 한미 FTA를 마무리하지 못하며, FTA 협정문과 현안 진전사항을 패키지로 미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
- 기술협약에서 주요 관심사항은 도출된 사항: AI 발생 지역화 인정, 육류 수출 작업장 승인 등.

2. 협상 대응방향

- SPS 협의채널과 관련, 일정 기간 접촉창구를 운영

한 후 위원회로 전환하는 우리측 절충안을 토대로 최대한 합의 추진

- 다만, 협의채널의 구성형태보다는 양국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
 - 양국간 검역체계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검역기관간 협력 등 포함
- 한·미간 검역역량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정기협약체가 부담스런 만큼 국내 SPS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병행 추진
 - 전문가 교류 및 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이 핵심
 - 검역조직 및 기능 개편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포괄
 - SPS 현안에 대한 추가 기술협약의 요구에는 별도 창구를 통해 성실히 대응

